

## 〈實證主義 論爭〉의 哲學的 性格

安 相 憲

### I. 서 론

이른바 〈실증주의논쟁 (Positivismusstreit)〉<sup>1)</sup>은 60년대에 걸쳐 독일 사회학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철학적 논쟁이다. 본래 이 〈논쟁〉은 〈사회과학의 논리〉라는 주제하에서 경험·분석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과학철학자 포퍼 (K.R. Popper) 와 변증법적 방법을 옹호하는 사회비판이론가 아도르노 (Th. W. Adorno) 사이에서 시작되어, 그들의 제자 혹은 계열의 하버마스 (J. Habermas) 와 알베르트 (H. Albert)의 논쟁으로 이어졌다.<sup>2)</sup>

그런데 이 〈논쟁〉은 〈사회과학의 논리〉에 있어서 아무런 동의나 어떠한 명백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각자의 논지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논쟁점에 있어서는 혼란과 분열상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3)</sup>

이 논문은 이러한 혼란과 분열이 야기된 〈논쟁〉의 철학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 〈논쟁〉의 주제인 〈사회과학의 논리〉에 있어서 하나의 타당한 결론을 끌어낸다거나 어느 한 편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하고자 한다. 또한 〈논쟁〉의 구체적인 철학적인 문제도 여기선 충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논쟁〉은 어떻게 발단되고 전개되었으며 〈논쟁〉의 요지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논쟁〉에 대한 예비지식을 위해 약술될 것이지만 이 논문을 이

1) 이후부터는 〈논쟁〉으로 약칭한다.

2) 본문 II. A 참조.

3) R. Dahrendorf, 「Remarks on the Discussion of the Papers by Karl R. Popper and Theodor W. Adorno」(In : Theodor W. Adorno, et al. *The Positivist Dispute in German Sociology*, London, 1976) p. 123, K. Popper, 「Reason or Revolution ?」(In : *Positivist Dispute*) p. 290, 차인석, 「사회과학의 과학론」(In : *사회과학의 철학*, 민음사, 1980) p. 14.

해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체가 된다.

2. <논쟁>은 어떠한 배경적 맥락에서 나타난 것인가? 여기선 <논쟁>의 배경적 맥락으로 인식론적 배경과 방법론적 맥락을 검토해 볼 것이다. 먼저 인식론적 배경은 인식체계의 확실한 근거로서 <아르키메데스의 기점>을 찾으려했던 전통적 인식론의 해체와 더불어 절망적 상황에 처한 현대 인식론의 맥락에서 고찰될 것이며, 다음으로 방법론의 의미와 맥락도 이 <논쟁>과 관련하여 살펴질 것이다.

3. <논쟁>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기에선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개념들의 혼란상을 지적함으로써 <논쟁>의 문제점을 들추어 낼 것이다.

4. <논쟁>의 철학적인 성격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선 혼란과 대립으로 일관된 <논쟁>의 철학적인 성격을 <철학함에는 어떠한 관례 (convention)도 없으며>, <철학이론도 이론인 한에 있어서는 파라다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과학이론과 철학이론의 관계도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논쟁>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반성은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만약 이러한 반성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을 간파한 채, 이 <논쟁>에 눈을 돌린다면, 그 순간 우리의 시각은 그들 논쟁자의 시각에 제약되고, 우리의 사고는 그들의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혼란과 분열상에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철학계나 사회과학계에서도 커다란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sup>4)</sup> 이러한 반성의 계기를 거쳐서만 비로소 발전적인 논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철학하는 정신은 자유로운 사유와 반성적인 비판을 유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한한 개방성과 철저한 문제의식을 지닌 철학의 특성이다."

## II. <논쟁>에 대한 예비지식

### A. <논쟁>의 발단과 전개

이 <논쟁>은 1961년 10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독일사회학회 (Deutsch-

4) 이에 관한 논의는 월간지 "정경연구" (정경연구사) 75년 6월호부터 76년 2월호와 그밖에 "현상과 인식" (77년 가을호)를 참조할 것. 단행본으로는 "사회과학의 방법론" (현암사, 1973)과 "현대사회과학 방법론" (민음사, 1977)이 있다. 참고문헌참조.

tschen Gesellschaft für Soziologie)〉의 한 비공개 학술토론회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는 독일 사회학계의 발전기로 학파의 형성과 더불어 사회학 방법론이 제각기 정립되어가던 시기였다. 이에 1960년 <독일사회학회> 평의회는 스타머(Otto Stammer)의 주재하에 서로 다른 방법론적 견해를 가진 사회학자들의 이론적 중재를 시도하려는 뜻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이 회합에는 전후 독일 사회학계의 주역들이라 할 수 있는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 쾤니히(R. König), 셀스키(H. Schelsky), 게엘렌(A. Gehlen)등이 참석했다. 이 회합에 의해 학술발표회가 개최되도록 합의되었다.<sup>5)</sup>

이 토론회에 초청된 포퍼는 발제강연으로써 「제사회과학의 논리(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를 발표하고, 이어서 아도르노가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제사회과학의 논리에 대하여(Zur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를 발표함으로써 이 <논쟁>은 시작되었다.

이어서 1963년 하버마스가 아도르노 60세 頌壽기념논문집<sup>6)</sup>에다 포퍼-아도르노 논쟁에 대한 後記로써 「분석적 과학론과 변증법(Analytische Wissenschaftstheorie und Dialektik)」을 발표하여 아도르노의 견해를 지지 응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1964년 알베르트는 「전체적 이성의 신화-비변증법적 비판을 통해본 변증법적 주장(Der Mythos der totalen Vernunft. Dialektische Ansprüche im Lichte undialektische Kritik)」으로써 포퍼를 응호하는 입장에서 하버마스를 공격했다. 이와 같은 해 하버마스는 다시 「실증주의적으로 양분된 합리주의에 대한 반론(Gegen einen positivistisch halbierten Rationalismus Erwiderung eines Pamphlets)」으로 알베르트에 대항했으며, 1965년 알베르트는 다시 「실증주의의 배후에서? 비판적 조명에서 본 변증법적 우회(Im Rücken des Positivismus? Dialektische Umwege in Kritischer Beleuchtung)」를 발표하여 하버마스를 재공격했다.<sup>7)</sup> 이러한 논쟁은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논쟁했으나, 이 때는 이미 논의의 내용을 벗어난 서로의 입

5) 심윤종, 「프랑크푸르트학파와 비판이론」, (In : 프랑크푸르트학파, 청람사, 1979) p. 30.

6) M. Horkheimer, *Zeugnisse. Theodor W. Adorno zum sechzigsten Geburtstag*. Frankfurt, 1963.

7) Heinrich Beck, 「Der Positivismusstreit」(Rombach, hrsg. *Wissenschaftstheorie*, I, Freiburg, 1974) S. 41, 이상의 논문은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Der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ziologie*, Herman Luchter and Verlag, 1969, 영역본은 註3)과 같다.

장에 대한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나아감을 볼 수 있다.<sup>8)</sup> 이후 그들의 논지는 하버마스의 저서 <인식과 관심(Erkenntnis und Interesse)> (1968)과 알베르트의 저서 <비판적 이성에 관한 논문(Traktat über kritischen Vernunft)>(1969)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 B. <논쟁>의 요지

이 <논쟁>의 논지는 각 논쟁자들의 이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고, 이것 또한 그들 이전의 철학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산물이다. 여기에선 <논쟁>에 나타난 주요 논지만을 <논쟁>의 전개과정에 따라서 약술하려 한다.

#### 1. 포퍼-아도르노 논쟁

##### a. 포퍼의 논지<sup>9)</sup>

포퍼의 인식론의 출발점은 얇과 무지의 긴장을 통해 나타난다.(명제 1, 2, 3)<sup>10)</sup> 얇과 무지의 긴장이란 곧 문제의 근거로서 <想定된 지식>과 <사실>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이것의 발견은 곧 문제의 발견이다. 포퍼에 있어서 <지식>이란 <지각>이나 <관찰>, <데이터나 사실의 수집>이 아니라 <문제>에서 출발한다.“문제없는 지식은 없고 지식없는 문제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무지없는 얕은 없고 얕이 없는 무지는 없다.”(명제 4)

문제의 대상은 우리들의 관심을 끌고 의미(significance)가 있고 또 우리들이 이를 정직하고(honesty) 솔직하고(directness) 성실하게(simplicity) 대하는 한, <이론적인 문제>뿐 아니라, 빈부, 억압, 권리침해 등과 같은 문제, 즉 <실천적인 문제>도 가능하다. 실천적인 문제들은 사변화하고 이론화함으로써만 이론적인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이것은 문제의 특성이자 자격이다. <관찰>도 문제성을 드러낼 경우에만 <문제>로 등장한다. (명제 5)

포퍼에 있어서 사회과학의 방법은 문제의 의도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다. 문제해

8) Th. W. Adorno, 「Introduction」, H. Albert, 「Short Postscript to a long Introduction」, K. Popper, 「Reason or Revolution？」(In : *Positivist Dispute*) 참조.

9) 포퍼의 논문 「제사회과학의 논리」는 논지를 명제화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체계는 <논쟁>의 주제자가 토론의 결실을 풍부히 얻고자 제안한 것을 포퍼가 받아 들인 것이다. 「The Logic of the Social Sciences」(In : *Positivist Dispute*) p. 88, 「Reason or Revolution？」p. 288.

10) 이것은 포퍼논문의 명제번호로, 이후부터도 같다. K.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ondon, 1963) pp. 33-65 참조.

결이란 관점에서 보면 자연과학의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해결책이 제안되었을 때 그 해결책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판에 개방되어야 한다. 비판은 곧 반박의 의도를 갖는다. 만약 그 제안된 해결이 비판을 견디어낸다면 우리는 더 토론되고 비판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비판을 통해 반박된다면 또 다른 해결책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과학의 방법은 신랄한 비판에 의해 통제되는 추측에 의한 의도적인 문제해결의 시도이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시행착오의 방법〉이 비판적으로 발전된 형태이다. 소위 과학의 객관성은 비판적 방법의 객관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비판의 공격을 초월한 이론은 없으며 논리적인 비판의 주요수단인 논리적 모순이 객관적임을 의미한다. (명제 6)

이상은 포퍼의 〈사회과학의 논리〉의 기본적인 체계이다. 포퍼는 이에 입각하여 〈자연주의〉 혹은 〈과학주의〉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객관성과 가치자유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포퍼는 관찰, 측정, 데이터의 수집, 귀납법에 의한 일반화나 이론형성을 통한 과학의 방법을 〈과학주의〉 혹은 〈자연주의〉의 잘못된 방법이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자연과학의 방법에 대한 오해와 미신을 근거로 자신을 〈자연주의〉 혹은 〈과학주의〉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잘못된 자연주의의 승리의 예로서 사회학과 사회인류학의 轉倒를 든다. 2차대전 전에는, 사회학은 이론적 사회과학으로, 사회인류학은 사회학의 한 특수분야로서 원시사회에 대한 기술사회학으로 간주되었으나, 대전 이후에 와서 이 관계가 전도되어 사회인류학이 보편적 사회과학이 되고, 사회학은 서구미의 고도산업사회에 대한 사회인류학으로 바뀌어졌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사회인류학은 융용 기술과학에서 이론과학으로 高揚되고, 인류학자는 단순하며 다소 좁은 안목을 가진 현장조사자 (field worker) 혹은 전문가에서 거시적이고 심오한 사회적 심층심리학자로 지위가 높아졌다. 포퍼에 의하면 이것은 관찰적, 기술적, 직관적 방법의 승리이며 동시에 거짓과학 (pseudo-science) 적 방법의 승리를 의미한다.

(명제 8, 9, 10)

이러한 이론적 사회학과 사회인류학의 轉倒는 과학의 객관성의 논의로 나아가게 된다. 포퍼에 의하면 과학의 객관성이 과학자의 객관성에 근거한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며, 자연과학자의 태도가 사회과학자의 태도보다 더 객관적이라는 믿음도 잘못이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자도 사회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념에 강렬하

게 대항하는 학파들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포퍼의 논지에서 과학의 객관성은 독단의 비판을 가능케 하는 〈비판적 전통〉에 근거한다. 즉 과학의 객관성은 과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비판, 단합, 경쟁, 분업등과 같은 사회적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이념의 소산인 학파나 학자들의 경합, 비판적 전통, 사회제도, 국가권력과의 연관하에서만 과학의 객관성은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자 개인이 거주지에 따라 과학의 객관성의 결여를 설명하려는 지식사회학도 과학적인 객관성의 사회적 층면인 지식사회학 그 자체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은 포퍼는 비판한다. 포퍼에 의하면, 학자의 사회적·이념적 서식지와 같은 세부적인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제거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명제 11, 12, 13)

포퍼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치판단과 과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는 우선 진리탐구에 속하지 않는 문제와 진리추구를 위한 순수과학적 문제를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은 비판적 논의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과학적 탐구와 과학 외적인 적용 및 평가의 문제를 엄격히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영역의 혼돈과 진리의 문제와 평가의 문제를 혼동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은 과학적 비판 및 논의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포퍼는 진리가 결정적인 과학적 가치이긴 하지만 유일한 가치는 아니며 적절성(relevance), 관심(interests), 중요도(significance) 등도 제 1급의 가치로 간주하고 있다.

과학적 행위로부터 과학 외적인 가치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순수과학의 순수성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임과 동시에 비판을 통해 싸워나가야 할 이상일 뿐이다. 따라서 객관적 가치중립적 과학자는 이상적인 과학자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대한 정열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객관성과 가치자유에 대한 애착 그 자체도 하나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치자유나 객관성에 대한 무조건적 요구는 역설적이다. 포퍼는 이러한 역설의 해결책으로 모든 가치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는 대신에 과학외적인 문제로부터 순수과학적 가치를 구분하는 과학적 비판에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명제 14)

그는 순수연역적 논리를 비판의 논리로 본다. 연역논리는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으로 참된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이행하는 이론이자, 거짓결론으로부터 하나의 전제로의 재이행의 이론이다. 이러한 연역논리는 〈합리적 비판〉의 이론이

---

11) 예를 들면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 빛의 입자설이나 파동설 등.

된다. 왜냐하면 모든 합리적 비판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결론이 우리가 비판하려는 주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도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반박의 논리〉가 된다. (명제 15, 16, 17, 18)

과학적 작업은 항상 이론 즉 연역체계로 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론이란 설명의 시도이며, 과학적 문제해결의 시도이고, 이론은 합리적으로 그 결과를 통해 비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제 19)

이에 따른 진리와 설명에 대한 포퍼의 이념 분석은 여기에선 생략하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과학을 자연과학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定義와 논리에 의해 구별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로 이해되어야 함을 포퍼가 강조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명제 20을 참조) 즉 순수한 관찰과 귀납에 의한 과학은 없으며,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론화하는 〈과학〉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이다. (명제 21)

이상과 같은 논리적 결과로서 포퍼는 사회학이 심리학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분석하고 있다.<sup>12)</sup> 그에 의하면 심리학은 사회과학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한 분파이다. 즉 언어, 가족, 모방 등과 같은 관념을 사용하지 않고는 학습, 사유, 정신분석과 같은 심리학적 관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심리학은 사회적인 관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적인 환경을 심리학적으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가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의 과제는 오히려 심리학의 전제가 되는 사회환경을 심리학과는 독립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자율적이다. 첫째는 인간행동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개인적으로는 바라지 않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경쟁〉과 같은—to를 심리학과는 독립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와, 둘째는 이해사회학 (Verstehende Soziologie)<sup>13)</sup>이라 불리는 것도 심리학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이다. (명제 22, 23, 24)

포퍼는 이러한 사회학의 자율성을 〈상황논리〉<sup>14)</sup>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상황논리란 심리학의 도움없이 상황의 파악만으로도 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행위자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객관적 이해를 지향하는 사회과학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한다. 이 때 객관적 이해의 판전은 행위가 그 상황에

12) K. Poppe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Evanston, 1968) pp. 31-32  
참조.

13) K. Popper, *Objective Knowledge*, ch. 4, pp. 153-190 참조.

14) K.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2, ch. 14, 「The Antonomacy of Sociology」 참조.

객관적으로 타당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은 우선 심리학적인 願望, 동기, 기억, 연상 등이 나타나는 요소가 상황의 요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히 분석되어야 한다. 즉 소원은 객관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객관적 사실로, 기억과 연상은 이론과 정보가 객관적으로 장치되어 있다는 사실로 변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명제 25)

그러나 이러한 상황논리는 이론적인 재구성으로 단순화되고 도식화된 것으로 이 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포퍼는 이러한 상황논리를 진리에의 접근이라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맥락에서 본다. 그에 의하면 상황분석은 합리적이며, 경험적으로도 비판 가능한 것이며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 된다. (명제 26)

또 상황논리는 물리적 세계에서 행동하는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황논리는 사회적 세계를 가정하고 사회제도를 가정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환경의 사회적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명제 27) 포퍼는 이와 같은 논리를 순수이론적인 사회학의 근본문제로 잠정적이나마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이론을 합리적으로 구명할 수는 없어도 그 이론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다. 그렇자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나은 이론을 구분해 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b. 아도르노의 포퍼 비판

그는 비판에 앞서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논리〉의 개념을 포퍼와는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포퍼에 있어서의 〈논리〉란 〈사유와 연역의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곧 연역논리이자 과학의 방법이 된다. 이에 반해 아도르노는 〈사회과학의 논리〉를 〈사회학의 구체적인 절차양식〉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아도르노의 〈논리〉의 개념은 곧 포퍼의 〈사회과학의 논리〉에 대한 비판의 중추이자 자신의 사회과학 방법론의 근간이다.<sup>15)</sup>

그는 먼저 포퍼의 암과 무지의 긴장을 통한 인식의 논리를 비판한다. 즉 포퍼의 인식논리는 과학의 엄밀성을 지향하는 점진적인 탐구의 방법론으로, 적절한 지식을 단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의 수집과 방법의 설명만으로 만족해야 하며, 이러한 논리는 사회와 사회구조에 대한 반성을 미래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예측으로 타부시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한다.<sup>16)</sup> 사회적 실재는 오히려 축적된 명제의 체계적인 통일과는 반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재와 분리된 방법론으로는 결코 밝

15) Th. W. Adorno, 「On the Logic of the Social Sciences」(In : *Positivist Dispute*) p. 105.

16) *Ibid.*, p. 105.

혀지지 않으며, 전체구조적인 계기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것이라 한다. 즉 “사회학적인 무지는 구체적인 사회와 사회구조에 대한 무지이지, 방법론적인 인식주체의 판단의 결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은 <문제의 우위>에 대한 <대상의 우위>로 설명한다.<sup>17)</sup>

<대상의 우위>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의존해서 실재의 모순을 파악하려함은 불가능하며 실재의 모순의 파악은 모순이 실재하고 있는 대상을 직시해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사회학의 방법은 실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재의 모순은 명제의 모순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18)</sup> 아도르노에 의하면, 과학의 개념에 맞추어 귀납법이나 연역법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베이컨, 데카르트 이래의 철학적 전통의 유습으로 삶의 전통과는 소외되고 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론의 최후의 과제는 결코 생산적인 지식과 일치하지 않는 논리적·과학적 모델에 일치하는 인식론은 폐기하고 대신에 인식의 실제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아도르노는 주장한다.

이상과 같은 아도르노의 입장을 자신의 말로써 요약하면 “포퍼의 문제는 단지 인식론적인 것이고, [아도르노 자신은] 인식론적임과 동시에 실천적인 세계의 문제에 대한 조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sup>19)</sup>는 것이다. 물론 자신은 과학내적인 문제와 실천적 문제를 분리함으로써 과학을 주물화(fetishization)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sup>20)</sup>

아도르노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포퍼의 문제해결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즉 포퍼의 비판적 문제해결은 체계적 이론에 의존함으로써 과학내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따라서 <반박>의 논리도 과학내적인 비판에서만 유용한 것이라 비판한다.<sup>21)</sup> 이와같이 포퍼는 비판의 범주를 하나의 기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성에 개개의 사회현상이 의존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증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아도르노는 포퍼의 문제해결의 시도에 <실험적 계기>가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와 같은 의도는 포퍼의 <상황논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겠다.<sup>22)</sup> 그러나

17) *Ibid.*, p. 107.

18) *Ibid.*, p. 108.

19) *Ibid.*, p. 109.

20) *Ibid.*

21) *Ibid.*, p. 109, p. 112.

22) 본문 II, B.1. a. 참조.

사회학에 있어서 사변적인 계기는 필연성으로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계기로 나타난다. 여기서 사변적 계기란 부정의 실재에 대한 철학적 개념으로 변증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의해서 아도르노는 <비판>의 개념을 과학의 객관성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이론으로 확장한다. 즉 사회학의 비판 작업은 결코 <명제> <공리> <개념체계> <방법>에 대한 비판에 한정될 수 없으며, 그것은 모든 체계화된 과학의 목적을 위해 통합된 주체들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sup>23)</sup> 다시 말하면 비판의 길은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호르크하이머의 「전통이론과 비판이론(Traditionale Theorie und Kritische Theorie)」<sup>24)</sup>에 잘 나타나 있다.

아도르노는 포퍼의 지식사회학의 비판에 동의하면서, 그러나 그의 비판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협한 비판이라고 본다. 소위 이데올로기의 총체적 개념이나 진위의 구분의 제거는 고전적 이데올로기의 의미와는 다르다. 즉 전자는 후자의 파괴된 형태를 드러내며 과학의 영역 내에서의 한 분야로 그것을 중립화하고 그 원리의 비판적 한계를 파악하는 시도로 연결된다. 만약 마르크스가 전자를 보았다면 아마도 그것을 <추상적인 부정>이라 비꼬았을 것이라고 아도르노는 주장한다.<sup>25)</sup> 결국 이데올로기의 전체적 개념은 사회적인 필연성인 물질적인 결정이 아닌, 관조와 같은 장식과 신조어를 통해서만 세속적 상대주의의 공허한 수사학적 세계관으로부터 구별된다. 따라서 포퍼가 비판하고 있는 지식사회학의 주관주의는 비판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포퍼는 전체적 이데올로기로 타락된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파악한 것이지 그것의 본질적인 개념은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sup>26)</sup>

아도르노는 포퍼가 무조건적 가치자유의 요구를 역설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로부터 철학적 과학적 결과를 끌어내었다. 즉 포퍼는, 아도르노에 의하면, 과학자의 평가 즉 가치판단은 과학자의 인간성을 말살하지 않고는 결코 배제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의 실천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sup>27)</sup> 동시에 과학의 객관성의 개념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sup>28)</sup>

23) *Ibid.*, p. 114.

24) M. Horkheimer, *Critical theory*, (New York, 1972) pp. 188-243 참조.

25) *Ibid.*, p. 115.

26) *Ibid.*, p. 116.

27) *Ibid.*, p. 117.

28) *Ibid.*, p. 116.

평가적 행위와 가치자유의 행위의 분리는 가치와 가치자유가 呪物化(fetish)되는 한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다. 아도르노는 가치문제가 마찰없는 자연정복을 위해 수단과 목적이 분리되는 단계에서 다시 말하면 수단의 합리성이 목적의 비합리성의 증대와 함께 진전하는 단계에서 생긴다고 보았다.<sup>29)</sup> 이와 같이 정신의 행위가 물신화의 상태로부터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만 평가적 행위와 가치자유의 행위의 구분은 옳은 것이다.<sup>30)</sup> 존재와 당위의 이원론은 역사적으로 강요되고 있고 무시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안티노미가 된다는 점에서는 거짓이다.<sup>31)</sup> 그것은 단지 사회비판을 통한 그 자신의 불가피성에 대한 통찰만이 가능한 것이다.

아도르노는 사회학적 심리주의를 포퍼가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공격의 논리가 다르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즉 포퍼의 인간과 사회환경의 분리를 피상적인 것으로 본다. 심리학이 검토하려는 인간은 단순히 사회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내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사회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또 체계화된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심리학은 사회과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사회제도의 내적 역동성은 인간이나 심리학파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아도르노는 포퍼처럼 두 과학이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사회학의 우위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양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경계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sup>32)</sup>

아도르노는 포퍼와 자신의 입장의 차이를, 포퍼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좋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낙관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데 반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sup>33)</sup>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는 모순된 사회의 경험은 결코 단순한 <판점>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하버마스-알베르트 논쟁

### a. 하버마스의 주요 논지

하버마스는 기본적으로 아도르노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그를 더욱 명증하게 설명 보완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의 특히 주목할만한 논지를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친다.

하버마스는 아도르노에서 이미 나타난 <전체성 (Totalität)>의 개념을 변증법

29) *Ibid.*, p. 117.

30) *Ibid.*, p. 117.

31) *Ibid.*, p. 118.

32) *Ibid.*, pp.119-120.

33) *Ibid.*, p. 120.

적 방법으로 명백히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의하면 <전체성>은 부분의 총합 이상의 것을 지칭하는 유기체로서의 <총체(whole)>의 개념과 다르며 변증법적 개념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전체성>은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요소들의 집합에 의한 논리적인 외연에서 결정되는 집합(class)이 아니라,<sup>34)</sup> “분석적 기술에 의한 형식적 규칙에 입각한 탐구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형식논리에서 보면 한갓 괴물(chimera)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sup>35)</sup> 형식논리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분석적 과학론자들이 이 <전체성>의 개념을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것은 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그는 이 개념을 <체계(system)>과 비교를 하면서 <체계>에 대한 <요소(elements)>의 관계는 <요소>의 독립성과 수학적 함수관계를 가정하고 있는데 반해, <전체성>과 <계기(moments)>의 관계는 전자의 관계처럼 풀어져야(dissolved) 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언어에서 초월되어야(transcendent)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양자의 상호관계의 구별은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sup>36)</sup>

이러한 두 유형의 형식의 구별을 하버마스는 ① 이론과 대상 ② 이론과 경험 ③ 이론과 역사 ④ 과학과 실천 등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했다. 그의 이러한 조명은 분석적, 경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변증법적 방법을 옹호하려는 의도를 내재하고 있다.<sup>37)</sup>

그는 먼저 대상인식에 있어서 해석학적 인식론을 도입하여 아도르노의 변증법적 방법을 설명하려 했다.<sup>38)</sup> 그는 아도르노가 “사회과학은 임의적이고 규정되지 않은 데이타가 아닌, 사회적인 맥락을 통해서 구성된 데이타를 가진다”<sup>39)</sup>는 말에서 해석학적인 소지를 발견했다. 그에 의하면 “이론형성과 이론의 개념구조에 있어서 이론은 대상을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조건과 방법에 있어 대상은 그것의 의미성(significance)에 따라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변증법적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 선택된 범주가 그 대상에 외적인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구조가 미리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었음이 틀림없는 대상을 드러내는 것은 과학적인 기

34) J. Habermas, 「The Analytical Theory of Science and Dialectics」(In: *Positivist Dispute*) p. 131.

35) *Ibid.*

36) *Ibid.*, p. 132.

37) *Ibid.*, pp. 133-144.

38) *Ibid.*, p. 134.

39) Adorno, *op. cit.*, p. 106.

재 (apparatus) 뿐이다. 이러한 순환은 선형적 접근이나 혹은 경험적인 직접성에 의해 파괴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적 생활세계에 대한 자연적 해석학과 관련된 변증법으로만 탐구될 수 있을 뿐이다. 명제의 가설-연역적 체계는 의미의 해석학적 설명으로 대치된다. 막연하게 전이해된 의미와 기호들의 상호분명한 협동에서만, 범주는 발전되는 맥락내의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 점차적으로 그것의 확고성을 얻는다.”<sup>40)</sup>

그는 분석·경험적 방법은 그들 자신이 한정한 〈경험의 단 하나의 형태〉만을 복인한다고 비판했다. 즉 인식주체가 달라져도 반복될 수 있는 조건아래서, 고립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작용의 통제된 관찰만이 지각의 상호주관적으로 타당한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가설이 논리적으로 옳고 경험적으로도 확신될 수 있다면 이론이 의존하는 경험적 기반을 드러낸다. 경험과학의 명제들은 이 좁은 시야를 통해서 〈경험〉을 수단으로하여 테스트되게 된다.

이에 반해 변증법적 방법에서는 대상과 이론이 상호일치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제한된 경험〉에서 통일될 수 없으며, 그것은 〈前과학적으로 축적된 경험의 바탕〉에서만 가능하다.<sup>41)</sup> 이 경험은 전체성으로서의 사회 (society as totality)에 대한 전경험이고 이것이 새롭게 검토될 이론의 윤곽을 형성하게 된다.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전체구조에 의존함은 개별성내에서 검증될 수 있는 어떤 자료보다도 타당하며 이 의존성은 결코 상상력의 단순한 허구적인 이야기거리는 아니다”<sup>42)</sup>라고 한 아도르노의 뜻이 더욱 명증해졌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분석적 도구가 사회구조와 텁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야만 하는 것이 변증법적 방법의 특징이다.<sup>43)</sup>

역사현상도 자연현상과 같이 가설-연역적 모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분석과학론에 대해 하버마스는 이론과 경험의 변증법적 원리로써 비판한다. 이러한 방식은 곧 〈역사가〉를 〈사회학자〉로 둔갑시켜 버리게 된다.<sup>44)</sup> 즉 포퍼가 법칙적 가설의 테스트는 역사과학과 무관하고 경험적 규칙성은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는 다른 차원의 조건이라고 한 점과 “역사법칙은 없다”<sup>45)</sup>고 한데 대한 비판이다.

변증법적 사회이론은 분석적 사회이론이 역사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

40) Habermas, *op. cit.*, p. 134.

41) *Ibid.*, p. 135.

42) Adorno, *op. cit.*, p. 113.

43) Habermas, *op. cit.*, p. 135.

44) *Ibid.*, p. 138.

45) K. Poppe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 2, London, 1973, p. 193  
참조.

는 객관적인 맥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역동적·법칙적 규칙성은 포함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역사의 운동법칙의 더욱 포괄적이고 더욱 제한된 타당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한 시대의 특정 맥락에서 추상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발전의 과정에 의해 한정된 <적용의 구체적인 특정영역>을 가리키며, 다른 한편 사회생활세계와 전반적인 시대상황이 <전체성>으로서 결정되고 그 모든 계기에 스며 있는 근본적인 이론과의 관계에서 취해지는 더욱 포괄적인 것을 가리킨다.<sup>46)</sup> 이것은 “사회과학적 법칙성의 일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구체성에서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관계와 항상 본질적으로 관계한다.”<sup>47)</sup>

이러한 유형의 역사적 규칙성은 행위주체의 의식을 통해 매개된 발전을 의미하며 동시에 역사적 삶의 맥락의 객관적 의미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변증법적 사회이론은 해석학적으로 나아간다. 경험·분석적 이론은 발견적 (heuristic) 가치에 애착하나 이것의 파악은 구성적인 것이다. 변증법은 사물 사이의 법칙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적 행위주체인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분석되는 <위험한 객관주의>를 피하려 하며, 해석학이 소박하게 주관적으로 관련성을 측정하는 한에 있어서 존재하는 <이데올로기화의 위험>을 피하려 했다. 만약 전자를 따른다면 역사연구는 개별사건의 설명으로 <이론>을 결여하게 되고, 후자를 따른다면 역사연구는 의미의 과거지평의 판조적 실현에서 <이론>을 결하게 된다. 변증법적 역사이론은 <이해의 방법>과 <인과적-분석적 방법>을 결합한다고 하버마스는 주장한다. 또한 역사 그 자체는, 의미의 객관적 이해에 의존해서 이론적으로 파악되기 위해서 역사적·역사학적 가설화가 피해질 수 있다면 미래에 계속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sup>48)</sup>

하버마스는 이론과 역사의 관계를 과학과 실천의 관계로 이행시켜 나간다. 그에 의하면 엄격한 경험과학적 방법은 개별적 사건 설명에만 제한된 역사연구로서 과거지향적 (retrospective) 가치를 지닐 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실천적 삶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다. 이러한 방식은 제한된 豫斷 (prognosis) 만을 허용하므로 목적이 미리 주어져 있을 때만 수단의 합목적적인 선택을 위한 기술적 추천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예단의 기술적 실현이 논리적 관계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이 방식은 <합리적 통제>를 위한 보조과학으로서 요청된다. 따라서 사회적 체제는 역사적 삶의 맥락에 근거하고 반복적 체계에 속하지 않으므로 설득력이 없다.<sup>49)</sup>

46) Habermas, *op. cit.*, p. 139.

47) Adorno, 「Sociology and Empirical Research」(In : *Positivist Dispute*) p. 77.

48) Habermas, *op. cit.*, p. 140.

49) *Ibid.*

변증법적 방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행된 과학과 실천의 관계가 사실과 결단의 엄격한 구별에 의존함에 반대하고, 記述적 과제의 성취와 실천적 문제를 구별함에 반대한다. 변증법적 과학론은 역사분석의 실천적 의도와 일반적인 해석의 주도적인 관점의 순수한 임의성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변증법적으로 객관적인 맥락에서 합법화될 수 있는 한에서만 〈실천적 행동의 과학적 정향(orientation)〉을 기대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이것을 사회과학의 의무이자 장점이라고 주장한다.<sup>50)</sup> 그것은 그 대상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허용하는 것이며, 아도르노는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실천적 문제와 내적 [논리적] 문제를 구별한다면 이것은 곧 과학을 주물화 (fetishize) 시키는 것이 된다”<sup>51)</sup>고 말했다. 이 문제는 인식주도적 관심이 과학에 내재하여 동기화되는지 혹은 과학이 삶의 실천으로부터 단순히 동기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분석적 과학론의 공준에 대한 변증법적 대안이 된다고 하버마스는 본다.

하버마스는 이상과 같이 〈전체성〉을 중심으로 한 변증법적 방법과 〈체계〉를 중심으로 한 분석적 방법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치자유의 문제<sup>52)</sup>, 결단의 문제<sup>53)</sup>, 포퍼의 이론바 인식론의 단초문제 (basis problem)<sup>54)</sup>, 목적과 수단의 문제<sup>55)</sup>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변증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경험·분석적 과학론을 비판하고자 했다. 여기서는 논지의 종복을 피하기 위해서 약하기로 한다.

#### b. 알베르트의 하버마스 비판

알베르트는 하버마스가 제기한 논리에 대해 분석적 방법을 사용해서 검토 비판하면서 하버마스의 반대와 제안이 어느 정도까지 지탱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포퍼의 개념과 논리로써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변증법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는 변증법의 우수성에 의문을 던지고, 그는 오히려 변증법적인 문제들을 비변증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그는 〈전체성〉과 같은 변증법적 개념은 네이글 (E. Nagel) 이 다양하게 분석해 놓은 〈전체 (whole)〉의 개념<sup>56)</sup>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50) *Ibid.*, p. 143.

51) Adorno, 「On the Logic of the Social Sciences」,(In : *Positivist Dispute*) P.109

52) 53) Habermas, *op. cit.*, pp. 144-149 참조.

54) *Ibid.*, pp. 149-157.

55) *Ibid.*, pp. 157-162 참조.

56) E.Nagel, *The Structure of Science. Problems in the Logic of Scientific Explanation* (London, 1979) pp. 380-397. 참조.

변증법적 방법에 반대했다. 그는 하버마스의 <전체성>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에 대해 “<전체성>의 개념을 임의적인 <결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분석>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심하게 말하면, 분석으로부터 후퇴하면 무엇이나 비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근거한 <면역의 전략(immutation strategy)>임을 발견한다”<sup>57)</sup>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하버마스가 경험과학의 도구적인 해석을 변증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데 대해, 과학철학에서도 과학의 도구적인 해석을 분명히 논의하고 있으며 이 러한 해석의 애매한 성질도 증명하려 했다는 사실을 하버마스는 무시하고 있다고 반대한다.<sup>58)</sup> 그는 법칙적 성격을 지닌 정보이론이 기술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 이 곧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인식적 관심>의 충분한 지표가 될 수 없으며, 기술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측면을 법칙적 성격은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sup>59)</sup>

아도르노에 의하면 기술적 관심의 지배가 대상영역에 무차별하게 적용됨으로써 사회대상에 관한 한 잘못된 <대상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알베르트는 과연 인식의 변화가 대상을 꼭해할 수 있는가, 대상에 따라서 명제의 유형과 이론의 구조가 바뀌는가 반문하면서, 하버마스는 이에 대해 아무런 지침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는 오히려 변증법은 분석과학이 그들의 관심을 변경시킴으로써 절망적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희망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한다.<sup>60)</sup>

하버마스가 법주의 적절성을 대상과의 관계에서 보장하려 함은 올바른 이론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상언어, 일상적 지식의 측면으로부터 출발하고 싶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가 사회생활세계의 <자연적 해석학>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함에 대해 알베르트는 이것은 곧 과학의 포기라고 보아 반대한다. 왜냐하면 과학도 일상생활의 경험적 지식에서부터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하버마스의 명제는 과학적 작업을 수행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계보(pedigree)를 더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변증법적 사회과학은 비판적인 인상보다는 보수적인 인상이 더 짙다”<sup>61)</sup>고 알베르트는 주장한다.

알베르트는 하버마스가 분석·경험적 과학이 <경험의 한 유형>만을 북인한다는 데 대해 이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이론형성에 있어 경험의 개념은 이러한 측

57) H. Albert, 「The Myth of Total Reason」(In : *Positivist Dispute*) p. 170.

58) *Ibid.*

59) *Ibid.*, p. 171.

60) *Ibid.*, p. 172.

61) *Ibid.*, p. 173.

면에 제한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구별되는 상황〉을 발견해내는 것은 과학의 본질적인 과제이다. 만약 문제상황에 대한 적절한 결과가 이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상황은 쓸모가 없게 된다.<sup>62)</sup> 알베르트는 하버마스가 이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것은 〈경험의 좁은 유형〉에 대한 하버마스의 오해이다.”<sup>63)</sup>

알베르트는 변증법적 사고가 〈미리 테스트 가능한 이론〉으로 바뀔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경험의 기원에 있어서 해석학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론형성을 안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석학적 경험]이 이론의 범주의 자격을 보증하는 기원인가, 새로운 사상은 왜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해야 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한다.<sup>64)</sup> 이 점에 있어서 하버마스의 방법론은 불필요한 제약이 되며, 이것은 보수적이며 경험의 확장된 개념은 잘못을 유도하는 방법적 가능을 가질 뿐이라고 그는 본다.<sup>65)</sup>

그는 또 하버마스가 〈전체성〉에 대한 해석학적 예측이 대상 그 자체에 있어서 옳은 것으로 자립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하버마스는 기능주의적 〈체계〉의 개념의 테스트 불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였던 바, 알베르트는 이것은 결국 해겔적 유산인 〈개념의 지나친 강조의 문제〉를 선호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sup>66)</sup>

그는 변증법적 과학론자가 해겔적 유산인 〈전체성〉 〈변증법적〉 〈역사〉 등과 같은 개념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움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呪物化〉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다고 주장한다.<sup>67)</sup> 그들의 개념은 어마어마한 개념들이며 〈전체성으로서의 역사〉 파악을 목적으로 삼고 〈역사의 객관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냉정한 절차분석의 흔적이 없는 것이다. 알베르트는 그들이 〈역사법칙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과 유사하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가〉 〈역사법칙은 어떤 의미에서 단청명제(singular statement)와 다른 것일 수 있는가〉 〈이런 명제의 법칙적인 성격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주관적 해석학에서 객관적인 의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62) *Ibid.*, p. 174.

63) *Ibid.*, p. 175.

64) *Ibid.*

65) *Ibid.*, p. 176.

66) *Ibid.*

67) *Ibid.*, p. 177.

유용한가> 등에 대한 절차분석이 전연 되고 있지 않음을 통박했다.<sup>68)</sup>

하버마스는 과학과 실천의 관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철학> 즉 역사적이며 동시에 체계적인 변증법적 결합을 시도했다. 이것은 실천적 방향의 종명이며 역사적 의미로부터 도출된 실천적 행위의 객관적인 정당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알베르트에 의하면, 이것은 자기기만적인 견해이다. “우리는 역사 그 자체에게 우리가 전개할 수 있다고 믿는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심해야하는 의미밖에 없다.”<sup>69)</sup> 이에 대해 하버마스는 자신이 제기한 <합법성>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객관적인 해석이라는 가면(mask) 아래서만 합법성이 나타난 것이다.<sup>70)</sup>

알베르트는 하버마스의 <사실>과 <결단>의 이원론의 부정을 비판했다. 하버마스는 <규범적인 의미가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 대한 합리적 논의로부터 배제되는가>와 <실증적 지식이 모든 규범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가>를 문제삼는데, 이에 대해 알베르트는 이것이 이원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sup>71)</sup>

하버마스는 포퍼의 <단초문제(basis problem)>가 순환성을 은폐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sup>72)</sup> 이것은 기본명제(basic statement)를 얻기 위해서는 이론의 개념장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순환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알베르트는 논박한다. 법칙의 적용은 법칙적용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개념적 장치의 사용을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순환성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포퍼의 관심은 행동의 분석이 아니라 방법론적 문제의 해결이다. 이 것에 대해 비형식화된 기준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해결이 아니다. 즉 방법론에서는 규범과 기준은 사회적 데이터의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비판적 설명의 문제이며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한 규칙과 기준의 합리적 재구성의 문제이다. 알베르트는 이러한 점에서 변증법론자들은 <실제적인 사회적 데이터에 의한 탐구의 논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사실상의 실증주의자(real positivist)>가 되었다고 주장한다.<sup>73)</sup>

알베르트는 변증법적 방법론은 포퍼식의 방법론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단순한 사실성(mere facticity)>이라고 부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

68) *Ibid.*, p. 178.

69) K. Popper, *op. cit.*, p. 364.

70) Albert, *op. cit.*, p. 181.

71) *Ibid.*

72) Habermas, *op. cit.*, pp. 149-158, K. Poppe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Evanston, 1968) ch. 5, pp. 93-111 참조.

73) Albert, *op. cit.*, p. 183.

방법론을 은폐·포섭시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의 측면에서 우리는 변증법적 방법으로 사회학을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알베르트는 제언한다. 실제로 하버마스의 방법이 어떠한 면에서 사회학에 공헌할 것인가라고 묻고 이것은 이데올로기로서만 가능하다고 알베르트는 보았다.

이상에서 우리는 〈논쟁〉에 참여한 양자의 입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개략적인 논지의 서술은 이 논문이 시도하려는 〈논쟁〉에 대한 예비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논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개략적인 논지에서도 우리는 이 〈논쟁〉이 지니고 있는 많은 논쟁 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논쟁〉은 피상적으로는 많은 동의점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나, 실상에 있어서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도덕적 입장과 그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은폐되어 있음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다. 논쟁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sup>74)</sup>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오해보다는 논쟁자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입장에서 전연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은데서 오는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이 〈논쟁〉은 많은 개념 규정상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논쟁〉상의 문제점들이 다음장에서 주로 논의될 것이다

### III. 〈논쟁〉의 배경적 맥락

#### A. 〈논쟁〉의 인식론적 맥락

이 〈논쟁〉은 근래에 와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인식론의 발전과 현대의 인식론의 절망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식론은 근대 철학의 주요파제로써 데카르트 이후로 급속히 발전되었다. 이 때 인식론의 파제는 인식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전통적 인식론에 있어서 대륙의 합리론자나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모두 인식론의 전개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출발점으로써 〈아르키메데스의 기점〉을 찾고자 했다.<sup>75)</sup> 이들은 모든 의심스러운 것을 배제하고 결정적으로 확실한 지식체계를 보장하기 위

74) Habermas, 「A Positivistically Bisected Rationalism」(In : *Positivist Dispute*) pp. 199 ff, A. Sarlemijn, *Hegel's Dialectic*, (Dordrecht - Holland, 1975) epilogue, note 4, p. 181.

75) O. F. Bollnow, *Philosophie der Erkenntnis*, (Stuttgart, 1970) ch. 1, pp. 13-22.

해서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기점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지식의 전당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위에 세우려는 것><sup>76)</sup>이 그들 인식론의 지상파제였다. 이에 데까르트는 이 기점을 명증한 공리로써 <cogito ergo sum>에서 찾았으며 경험론자들은 <경험>에서 찾았다. 그들은 이 기점에서 출발하여 각각 논리나 귀납논리로써 지식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후 칸트는 이를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새로운 인식체계를 완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와같이 참으로 확고부동한 기점을 찾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앎이 불확실한 것인가하는 문제로 인식론은 자체반성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오늘날 이러한 기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다.

데까르트의 기점은 그후로 새로운 철학적 입장을 만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현대의 실존주의자들은 ‘오히려 데까르트와는 반대로 이미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때때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였고, 또 마르크스도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또한 가장 엄밀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에 대해서도 오늘날 비판적인 추세가 나타났다. 수학은 명확하고 자명한 전제위에서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학문이다. 이 명확하고 자명한 전제를 일컬어 <공리>라고 한다. 이 의심없고 확고부동하던 <공리>도 오늘날의 위상기하학 (topology) 나 괴델의 공준 (Gödel's theorem) 등에 의해서 불확실하고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리도 이제는 하나의 가설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sup>77)</sup>

경험론자들의 지식체계의 기점인 <경험>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어려운 개념임이 사실이다. 이 <논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험>에 관한 논의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경험>이란 결코 단순하고 명증한 것이 아니다. 실용주의자들은 인간의 경험에 <~으로> <에서> <의> 등과 같은 전치사로 표현되는 것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경험>이란 매우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 경험론이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감성적 경험>이다. 그런데 이것을 기점으로 삼으려 한다면 경험에서 나온 인상들이 경험의 원자와 같은 감각의 가장 확실한 최소의 단위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전제가 불가피하다. 이 전제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마하 (E.Mach)의 감각주의 (sensationalism)이나 협센의 논리적 원자론,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이론, 카르납의 논리실증주의 등으로

76) 이규호, *앎과 삶*, (연대출판부, 1972) p. 23.

77) Bollnow, *op. cit.*, pp. 14-17.

발전되어 왔다. 포퍼의 기본적인 사상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이러한 최소단위의 경험으로의 환원주의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지 않음은 기정사실이다. 하나의 경험과학인 형태심리학(Gestaltpsychologie)는 경험의 원자로서의 최소단위인 감각을 기점으로 우리의 인식이 성립된다는 이론을 거부했다.<sup>78)</sup> 형태심리학에 의하면 인식은 먼저 전체적인 형태에 의해 지각되고 다음에 하나하나의 감각들이 인지된다고 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철학적인 독단이 아니라 엄밀한 과학적인 실험의 성과로 나타난 만큼 잠정적이나마 기정사실이다.<sup>79)</sup>

이와같이 고전적 인식론은 모두 그들의 인식론적 작업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점을 찾았으나, 이렇게 한 기점에서 출발해서 직선적으로 쌓아 올려야 한다는 지식의 체계는 오늘날에 와서 부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론의 절망적인 상황은 오늘날 매우 다양한 인식론의 유형을 추구하게 하였다.<sup>80)</sup>

이 〈논쟁〉에서 대립되고 있는 인식론적 입장도 이러한 다양한 인식론의 양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학철학은 이와 같은 인식론적 절망상태에서도 전통적인 경험론적인 입장과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과학적인 지식체계를 새롭게 확립하려고 했다. 그들 중에는 과학적 인식의 모델을 자연과학적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과학주의〉라는 탐탁치 않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포퍼는 과학의 방법을 가설-연역적인 방법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방법을 철학에 까지 도입하여 〈비판적 합리주의〉라는 새로운 지식론을 전개했다.<sup>81)</sup>

한편 변증법적 인식론자들은 해석학적 지식론과 함께 사회적·역사적 실재를 파악하기 위한 소위 〈정신과학의 방법론〉을 제창했다. 하버마스는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한 사회적 실재의 파악은 기술적 관심에 의한 일면성만을 지닌 제한된 그릇된 인식임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실천적·해방적 관심에 의한 새로운 사회인식론을 주장하고 나섰다.<sup>82)</sup>

78) *Ibid.*, p. 20.

79) F. Sander, *Experimentelle Ergebnisse der Gestalt Psychologie*, (Leipzig, 1928).

80) 신칸트학파의 인식론, 과학철학에서의 인식론, 딜타이 이후의 해석학적 인식론, 후설의 현상학, 마르크스이후의 인식론 등이 있다.

81) K.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New York, 1965)에 수록된 논문들을 참조.

82) J.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London, 1972) Appendix, pp. 301 ff 참조, 본문 II. B. 2. a 참조.

이와 같은 인식론적 현실은 오늘날의 인식론의 다양성과 분열상을 드러내 주는 것이며, 동시에 현대의 인간정신의 난맥상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 B. <논쟁>의 방법론적 맥락

이 <논쟁>의 본래의 주제가 <사회과학의 논리>인 만큼, 우리는 이 <논쟁>을 <사회과학의 방법론 논쟁>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논쟁>을 그저 <방법론 논쟁>이라고 보아 넘기기 전에 <방법론>에 대한 맥락을 반성해 보고, <논쟁>의 방법론으로서 의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 늘어나면 날수록 모든 학문은 전문화가 불가피함을 우리의 학문의 발전과 분류에서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는 인간 두뇌의 제한성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 과학들의 연구방법들이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sup>83)</sup> 서로 다른 과학의 방법들은 특수한 기술적인 훈련 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고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모든 개별과학들은 각기 특수한 정신과 분위기로 말미암아 연구영역이나 연구자료보다도 서로 다른 방법의 차이가 그 과학의 특수성을 규정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방법론의 차이는 연구대상과 영역을 전연 다르게 나타나게 했다. 이와 같이 방법론의 차이는 연구영역의 차이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개별적 방법론의 전개와 발전은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전연 다르게 나타나게 하고, 달리 파악하게 한다. 예를들면 생화학과 생리학은 동일한 생명체를 다루면서도 그 방법론의 차이로 말미암아 연구대상은 전연 달라지게 될 것이다.<sup>84)</sup>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방법론 또한 독자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독자적인 관심은 순수 이론적 방법론을 가능케 한다.<sup>85)</sup> 철학적인 방법론자들은 이론 혹은 논리와 같은 학적 개념에 관심을 가지고 독자적인 영역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방법론적 탐구는 과학의 방법에 대해 보편적인 동일한 방법론적 근거를 주려 하고 나아가 모든 과학의 방법론적 통일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추구되는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방향은 곧 <과학주의><sup>86)</sup> 적인 망상을 갖게 한다. <과학주의>는 오직 과학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인식의 절대성을 믿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83) 이규호, *op. cit.*, p. 113.

84) *Ibid.*

85) D. Frisby, 「Introduction to English Translation」, (*In: Positivist Dispute*) p. xxvii.

86) 이 개념에 대한 논의는 본문 IV. B를 참고할 것.

확실히 허위의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과학주의〉는 발전된 엄밀과학을 실제로 선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보다는 〈과학〉이라는 〈이름〉에만 절대적인 매력을 갖는 메타이론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sup>87)</sup>

이 〈논쟁〉이 가지는 방법론적 관심도 예외는 아니다. 경험·분석과학론자들은 과학의 통일이라는 이상을 쫓아 과학의 객관적인 인식의 길을 제공하는 이론을 만들고자 했다. 그들이 〈방법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된다. 한편 변증법적 과학론자들은 통일과학의 이상아래 과학이론의 전형을 만들고자 하는 경험·분석적 과학론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론의 우위〉를 주장함으로써 변증법적 방법론을 제창하고, 이러한 방법론의 길로 정향(orient)되어야만 과학과 대상이 일치하는 진정한 과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88)</sup>

이러한 방법론의 다양한 개념에 관한 논의는 카플란(A.Kaplan)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sup>89)</sup> 그는 방법론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고찰했다. 그 하나는 보편적인 철학적 원리와 관련되는 방법론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과학의 기술과 관계 되는 방법론이다. 그는 이 두 가지 방법론의 개념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로 본다. 후자는 앞서 고찰된 바와 같이 그 적용분야마다 달라지는 것들로써, 어떤 기술은 매우 협의로 정의된 맥락내에서만 가능하고 어떤 기술들은 다양하고 광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전자의 개념도 다시 정도의 문제로 나뉘어 진다. 철학적 원리로서의 방법론도 그 중요성의 영역에 따라 어떤 것들은 인간의 모든 탐구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고—귀납이나 연역등—어떤 것들은—예를 들면 결정론의 문제등—특정과학의 한 분야에서만 관계한다.<sup>90)</sup>

이와 같은 다차원적인 방법론의 의미는 이 〈논쟁〉에서 제 3의 논쟁 참여자들의 노골적인 불만과 실망감을 야기시켰다. 즉 사회학의 논리적·과학적 기반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실제로 대학강단이나 사회학적 작업에서 나타나는 연구방향, 이론적 입장, 기본적인 도덕적·정치적 태도의 차이등의 기정사실을 간파함으로써, 실제적인 과학적 탐구에 도움을 주는 유용하고 타당한 방법이 있는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sup>91)</sup> 이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들 논쟁자들은 사회과학자들로부터 신랄한 공격을 받았고, 이에 대해 포퍼와

87) 이규호, *op. cit.*, p. 125.

88) 본문 II. B 참조.

89) A. Kaplan, *The Conduct of Inquiry: Methodology for Behavioral Science*, (California, 1964) pp. 3-34.

90) *Ibid.*, p. 23.

91) Dahrendorf, *op. cit.*, p. 123.

아도르노는 사회과학자들을 단지 경험적인 방법에만 얹매어 있는 <실증적방법> <비형이상학적 입장> <경험주의> <경험적 탐구> 등으로 명명하고, 그 둘은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여 상대편의 입장을 방법론에 대한 <부정주의자(negativists)>라고 비판했다.<sup>92)</sup> 기든스(A.Giddens)는 이러한 <논쟁>의 양상을 ‘왕자없는 힘’이라고 비꼬았다.<sup>93)</sup>

쉬네델바하(Schnädelbach)는 이 <논쟁>의 근원이 방법론의 개념에 있는 것 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의 해석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 그는 사회과학의 방법론이 요구하는 바는 <과학적 방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의 이해를 위한 조건에 대해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도, 이 <논쟁>은 방법론적 합의는 고사하고 방법의 해석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94)</sup>

이상과 같은 방법론의 다양한 의미와 맥락에서 볼 때, 이 <논쟁>은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성급하게 이루어진 일면적인 의미의 <방법론논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논쟁>의 근본문제 : 개념의 혼란

##### A. <실증주의>

이 개념은 이 <논쟁>의 타이틀로 채택될 만큼 두루 사용되고 있지만, 이 <논쟁>에서 가장 애매한 개념이자 기계속의 유령(deus ex machina)과도 같은 것이며, 명목적인 정의(nominalistic definition)로도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다.<sup>95)</sup> 이 개념은 불변하는 실체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녀온 개념이다. 어떤 의미에선 그만큼 자주 사용되어 일상적인 언어가 되 다시피 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포퍼는 자신을 <실증주의자>로 부르는 아도르노나 하버마스에 대해 분개하면서 그는 결코 <실증주의자>가 아니라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음을 역설한다.<sup>96)</sup> 이 때 그가 비판하는 것은 비엔나 씨클을 중심으로한 <논리실증주의자>들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카르납(R.Carnap)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명명에 대해

92) *Ibid.*, p. 125.

93) A. Giddens, ed., *Positivism and Sociology*. (London, 1974) p. 18.

94) H. Schnädelbach, 「Über den Realismus」. *Zeitschrift für allgemeine Wissenschaftstheorie*, vol. 3, 1972.

95) Frisby, *op. cit.*, p. x.

96) K. Poppe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Part I, Part II, ch. IV, V, 또 K. Popper, 「Reason or Revolution?」, (In: *Positivist Dispute*) pp. 289-290.

서 <논리적 경험주의자 (logical empiricist)라고 불리기를 더 좋아했다.<sup>97)</sup> 이와 같이 <실증주의>란 명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탐탁하게 생각지 않았다.

하버마스는 논리실증주의를 <실증주의> 중의 하나로 보고 그는 경험·분석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즉 비변증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두를 실증주의라고 간주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반성을 부인하는 것은 모두 실증주의”<sup>98)</sup> 라 본다. 그는 콩트 (A. Comte)의 실증주의 개념이 방법론적인 법칙으로 번역될 수 있음을 고찰하면서, 실증주의의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동기는 <구분 (demarcation)> 을 통해서 완전한 지식에서 배제하고, 궁정적인 동기는 방법론적인 규칙을 통해 지식으로 보장하려 했음을 밝혀내었다. 그는, 이러한 <제한적인 과학철학의 변호> 와 <비판적 계몽주의> 사이의 모순은 <실증주의> 역사의 본래의 모습이며, 이러한 결합을 시도한 실증주의는 불안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실증주의는 비판적 혹은 철학적 주장을 재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더욱 엄격해졌다고 보았다.<sup>99)</sup>

이와 같은 논쟁참여자들의 개념의 혼란은 <논쟁>의 쟁점을 찾지 못하고 공연한 헛된 개념비판과 부정을 일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가 <논쟁>을 이해함에 있어서나 <논쟁> 참여자의 오해를 낳게 하는 근원적인 소지가 되었다.

### B. <과학주의>

언뜻 보기엔 이 <논쟁>에서는 이 개념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가진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개념도 그들의 상호견해의 피상적인 공통성일 뿐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실증주의> 보다도 더 다양한 개념이다.

포퍼는 <과학주의>를 하이에크 (Hayek)의 본래 개념인 <과학의 언어와 방법의 독창성없는 흉내><sup>100)</sup> 와는 달리 <과학의 방법의 잘못된 것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sup>101)</sup> 포퍼에 있어서 <과학주의>란 잘못된 방법론적 입장의 수용을 일컫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버마스의 <과학주의> 개념은 실증주의적으로 해석된 과학철학에 의해 인식론이 대치되었음과 관계된다. <과학주의>는 <과학의 신념 그 자체>를 의

97) C. Hempel, 「Rudolf Carnap, Logical Empiricist」, (In : J. Hintika ed., *Rudolf Carnap, Logical Empiricist*, Dordrecht, 1975) p. 1-13.

98) A. Sarlemijn, *op. cit.*, epilogue, note 3, p. 181.

99)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pp. 74-77.

100) Hayek, 「Scientism and the Study of Society」,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1962.

101) Popper, *The Poverty of Historicism*, p. 105, *Objective Knowledge*, p. 185.

미한다. 즉 “우리들은 〈과학을 가능한 지식의 하나의 유형으로만 이해할 수 없고, 지식과 과학을 동일하다고 하는 신념을 일컬어 〈과학주의〉라 하는 것이다”<sup>102)</sup> 하버마스는 이러한 〈과학주의〉는 〈실증주의〉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실증주의는 〈과학주의〉의 원리의 입장에 속한다. 지식의 의미는 〈과학〉이 과학적 절차의 방법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절하게 설명되고 또 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방법론적 틀을 벗어난 인식론들은 한 때 형이상학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선고를 받았다. 하버마스는 〈과학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을 〈과학적 합리성〉 즉 〈논리성과 합리성 일반〉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했다.<sup>103)</sup> 이와 같은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적 개념규정은 〈합리성〉과 〈논리성〉을 동일시하는 포커에 반대하는 것이며, 과학적 지식만을 용인하고 철학적 지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과학철학에 대한 반론적 개념규정이다.

다른 〈논쟁〉 참여자들도 제각기 다르게 〈과학주의〉를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로렌цен (Lorenzen)은 “실천적 원리의 합리적인 정당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의 특징”이라 하였고<sup>104)</sup>, 리델 (Riedel)은 이러한 논쟁적 개념은 방법론적 관심을 넘어서 실천철학의 재수립으로까지 나아갔다고 했다.<sup>105)</sup> 또 아펠 (Apel)은 이를 실천적 영역까지 확장시켜서, 가치자유적인 〈과학적 합리성〉의 절대주의로서의 〈과학주의〉는 세 가지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sup>106)</sup> 첫째 전제는 상호주관적인 타당성과 과학의 주체의 객관성을 동일시하는 것이며, 둘째는 과학을 사실에 대한 형식논리에 따라 보장되는 가치자유적인 서술과 설명으로 규정함이며, 셋째는 어떠한 가치판단도 사실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펠은 이와 같은 〈과학주의〉의 전제가 하버마스-알베르트 논쟁의 핵심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과학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된 실천의 특수한 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2) Habermas, *op. cit.*, p. 4.

103) 본문 II. B. 2. a 참조.

104) Lorenzen, 「Szientismus verus Dialektik」(In: R. Bubner et als.,) *Hermeneutik und Dialektik*, vol. I (Tübingen, 1970).

105) M. Riedel, ed., *Rehabilitierung der praktischen Philosophie*, Freiburg, vol. I 1972, vol. II, 1974.

106) K. O. Apel, *Transformation der Philosophie*, 2 vols, (Frankfurt, 1973), 특히 「Einleitung」, 「Szientismus, Hermeneutik, Ideologiekritik」, 「Szientismus oder transzendentale Hermeneutik？」 등을 참조.

이러한 〈과학주의〉 개념의 다의성은 곧 이 〈논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인식론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혼란을 면치 못하는 큰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 C. 기 타

이상과 같은 개념들 외에도 이 〈논쟁〉은 많은 서로 상이한 개념 규정을 함으로써 〈논쟁〉을 이해하는데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그들은 이 〈논쟁〉의 주제를 〈사회과학의 논리〉라고 했을 때, 〈논리〉란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즉 포퍼는 이것을 모든 과학의 방법으로서 〈사유와 연역의 보편적인 규칙〉인 형식논리를 의미한다. 즉 그의 〈추측과 반박의 논리〉는 엄격한 형식논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그의 논문에서 〈논리〉의 개념을 〈사회학의 구체적인 절차양식〉이라 규정함으로써, 이것을 형식논리의 영역을 벗어난 〈사회학의 방법〉 그 자체를 의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07)</sup> 이 때 〈논리〉란 〈방법〉 혹은 〈방법론〉과 전연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 만약 그들이 〈논리〉의 개념규정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켜나갔다면, 이 〈논쟁〉은 그들의 입장을 전개해 나가는데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이는 주제 자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결여가 분명하다.

이러한 〈논리〉의 개념의 상이성은 〈과학〉의 과학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난점을 야기시켰다. 즉 포퍼는 〈과학〉을 〈가설-연역적인 모델〉에 입각한 객관적인 설명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학〉의 개념 규정은 그가 애당초 목적했던 바인 “어떠할 경우에 하나의 이론은 과학적인 것이 되는가?” 혹은 “이론의 과학적 성격이나 자격을 위한 기준은 있는가?”<sup>108)</sup> 하는 그의 과학의 과학성에 대한 관심의 결과였다. 이에 대해 비판이론가들은 〈실증주의〉 혹은 〈과학주의〉에 대한 비판과 같은 논리로써, 단지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인 〈실증주의적 과학〉을 비판하면서, 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써 〈변증법적 과학〉을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적 역사적인 실재는 결코 가설 연역적인 모델에 입각해서는 파악 불가능하며, 개별적 현상을 전체성과의 관련하에서 파악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과학〉의 과학성을 변증법적인 영역에서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사회학 (sociology)〉라는 명칭도 잘못 명명된 것이라고 비판한다.<sup>109)</sup>

107) 본문 II. B. 1. b 참조.

108) K. Popper, *Conjectures and Refutations*, p. 33.

109) *Aspects of Sociology by the Frankfurt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ch. I, 「The Concept of Sociology」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합리성(Rationalität)>의 개념도 서로 다르다. 즉 포퍼는 이 개념을 비판적 논리의 합리성으로 보아 <논리성(Logizität)>과 동일시했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과학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지배적인 견해이다.<sup>110)</sup> 그러나 비판이론가들은 철학적 자유에 있어서 이성의 작용을 포괄하여 이를 <합리성>이라 규정하며, 이에 따라 <실천적 합리성>까지도 <합리성>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비단 비판이론의 영역이 아닌 최근의 윤리학에 있어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111)</sup>

이외에도 이 <논쟁>에는 <경험> <비판> <이데올로기> <이론> 등과 같은 개념의 혼란은 무수히 많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은 일상적으로는 거의 문제 가 없을 것 같으나 논쟁에 있어서는 정확한 개념규정을 하지 않고는 혼란한 것들이 대부분인 바, 그들은 이에 대한 상호 견해의 조정이나 반성이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 <논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V. <논쟁>의 철학적 성격

이제까지 살펴 본 <논쟁>에 대한 고찰의 결과로 보아, 이 <논쟁>은 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의 가치보다는 철학 자체에 대한 더 많은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있다 보여진다. 즉 이 <논쟁>은 철학함의 무전제성과 철학이론의 파라다임적인 성격을 잘 부각시켜 주고 있으며, 나아가 과학이론과 철학이론의 성격에 대한 반성도 가능케 해 주고 있다.

### A. 철학함의 무전제성

철학사와 현대 철학의 조류에 있어서 철학자들은 제각기 그들이 해결하려 했던 문제들과 그것을 풀기 위한 방법에 대해 끝없는 탐구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그들이 해결하려 한 철학적인 문제나 방법은 각 철학자들마다 다를 만큼 다양하다. 철학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고대의 자연철학에서부터 최근의 프랑스의 신철학파 (*Nouveaux Philosophes*)에 이르기까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철학적 관심과 문제들이 각 철학자마다 다양하게 다른 양상으로 부침되어 왔다. 그들은 그들의 근본적인 관심이 시대상황, 우연적인 개별적 사건, 사회적 지위, 지역 등과

110) K. Bayertz, *Wissenschaft als historischer Prozeß: Die antipositivistische Wende in der Wissenschaftstheorie*, Teil 1, III의 Rationalität and Logizität  
참조 pp. 46-49.

111) Good Reason Approach에 속하는 S. Toulmin, K. Baier, M. Singer, J. Rawls 등의 윤리설 참조.

관련하여 어떤 문제에 어떤 측면에 어떤 목적을 갖고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철학적 사유를 했고 그 소산으로서 많은 철학이론들이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자기자신이 익히 알고 있거나 그들이 속해 있는 학파들의 개념이나 언어나 자신들이 창출한 새로운 개념들을 사용하여 제약없이 사유해 왔다. 철학함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 참인 것, 理想적인 것 등에 대한 철학하는 태도와 철학하는 정신 혹은 정열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철저하고 개방적인 철학하는 정신은 입의적인 학파, 시대 지역 등의 제약을 끊임없이 초월하려고 했으며, 누구도 무엇도 철학을 통제하거나 규정할 수도 없으며 그 방향을 끝까지 유도해 줄 수도 없었다. 이러한 철학함의 성격은 진리의 개념, 學의 개념, 철학의 개념이나 목적, 방법 등에 있어서 하나의 의미와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철학의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혹 철학에도 어떠한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어라는 제약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 조차도 인간은 넘어서려고 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개념의 철학적인 언어를 만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철학에도 어떠한 전제나 판례도 없음을 자명하다.

이와같은 철학함의 무제약적 성격은 이 〈논쟁〉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분석, 경험적 과학론자나 변증법적 과학론자들의 철학하는 정신은 그들이 〈비판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서 개방적 사유로 나타난다.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비판〉의 대상은 각기 〈가설명제〉나 〈사회적, 역사적 현실의 모순적 실재〉로써 비록 다르진 하지만<sup>112)</sup>, 그들은 그 대상에 관계없이 비판을 향해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어놓음으로써 철학적 사유를 진행시켜 나갔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그들은 그들의 사유의 대상을 〈사회과학의 논리〉로 하여 〈논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철학〉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제시한 어떠한 문제나 해결의 노력도 모두 그들 자신과 또는 그들이 즐겨 속하기를 원했던 학파의 철학적 정신의 발로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철학하는 정신에는 서로의 입장장을 상호 조명해 봄으로써 각자 반성의 계기를 삼을 수는 있으나 결코 완전한 화해란 있을 수 없다. 이 〈논쟁〉은 이러한 철학적 정신의 성격의 반영임이 분명하다.

#### B. 철학이론의 파라다임적 성격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철학적 사유가 개방적이고 무제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이 그들의 사유결과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철학이론

---

112) 본문 II. B. 1. 참조.

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철학이론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진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 철학이론은 철학적 자유의 인위적인 틀을 통해 언어로 표현된 체계라 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개념의 정의나 논리적인 진술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로 말미암아 철학이론은 통상 그 철학자가 속해 있는 학파나 그 이전의 철학자들이 사용한 개념규정을 수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아마도 언어의 보편성과 사회성이 그 철학이론의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며 정확성을 기하게 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철학이론은 파라다임적 (paradigmatic) 성격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파라다임적 성격이라 함은 쿤 (Th. Kuhn)이 과학이론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쿤에 있어서 <파라다임>이란 보편적으로 인정된 과거의 학문적 성과로서 앞으로의 과학적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113)</sup>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서적이나 교과서에 상세하게 실려져 있고 과학적 활동을 하는 자들에 모범적인 문제해결의 길을 제시해 준다. 과학자 사회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파라다임을 사용해야 그 학문활동은 정상적인 것이라 불리게 된다.

철학이론도 과학이론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또 철학적 작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파라다임적 성격이 강하다. 철학자들이 내어놓은 대부분의 철학이론은 자신의 지적 전통에서 개념이나 이론모형을 원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철학이론>은 이론가가 어떤 학적 전통을 따르는가에 따라 그 이론의 파라다임적 성격이 드러난다.

이 <논쟁>의 두 논쟁자들의 이론체계도 그것이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파라다임적 성격이 뚜렷하다. 즉 <논쟁>에 나타난 경험·분석적인 과학론은 오랜 경험론적 전통과 논리실증주의의 성격을 많은 부분에서 수용하고 있는 포퍼학파의 파라다임으로 볼 수 있으며, 변증법적 과학론은 해겔적 전통과 마르크스의 인식론적 성격을 지닌 해겔좌파 혹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파라다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 각자의 과학론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지적전통을 떠나서는 거의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를 이론은 어느것이 그 시대상황과 보편적인 인간의 식에 더 큰 설득력을 지니는가에 따라서 그 세력과 호응도가 그 실현과 함께 浮沈 할 것이다. 이러한 부침은 쿤이 과학이론에서 말하는 改宗의 의미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

113) Th.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1970) 참조.

### C. 과학이론과 철학이론

이 〈논쟁〉은 해당초 방법론의 이론적 중재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론적 중재란 이 〈논쟁〉의 각 방법론을 과학이론과 유사한 성격으로 생각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곧 실증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사고로 철학함파는 거리가 멀다. 설사 이론적 중재가 다른 의도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의 파라다임 이론이나 포이어아벤트(Feyerabend)의 이론의 상호비교불가능성(incommensuability)<sup>114)</sup>과 같은 과학이론에 대한 이론에서와 같은 난점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이 〈논쟁〉이 지난 철학적 사유로서의 무관례성과 철학이론으로서의 파라다임적 성격도 그가 속한 집단의 크고 작은 차이에 따라 개인이나 하는 차이에서만 구별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과학이론〉과 철학적 사유의 〈산물〉인 〈철학이론〉은 이러한 〈정도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과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의 구별도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인식주체와 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떻게 가능한가하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과 육체의 구별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이다. 과학이론에서는 인식주체는 반드시 어떤 경험대상을 가지고 있음이 전제된다. 즉 과학이란 인식주체와 대상이 구별되고 대상그자체도 다른 대상과의 구별되는 측면에서만 성립한다. 그러나 철학이론에서는 전연 그런것은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동일철학(identity philosophy)까지도 철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이나 철학의 구분은 생물과 무생물의 구별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는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것과 같은 철학도 과학도 아닌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과학이론과 철학이론은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구별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포퍼가 과학의 방법에서 철학적인 사유방식으로 나아가는<sup>115)</sup> 것이나 하버마스가 철학적이면서도 동시에 과학적인 사회인식론을 풀어내는 것<sup>116)</sup>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철학과 과학을 구별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난해할지도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이라 여겨진다.

114) P. Feyerabend, *Against Method. Outline of 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 (London, 1975). 참조

115) 포퍼의 〈비판적합리주의〉와 이를 토대로 한 그의 사회철학을 말한다. 이것은 그의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1973)에서 주로 논의된다.

116) 하버마스의 주저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와 *Theory and Practice* (Boston/London, 1974)에서 주로 언급 되고 있다.

##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논쟁〉의 혼란과 분열상은 〈논쟁〉의 철학적인 성격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쟁〉을 어떠한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논쟁〉의 양상을 달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1. 이 〈논쟁〉을 〈과학이론〉의 대결로 다룬다면, 그 결과는 분명한 하나의 결론에서 통일될 수 있으리라는 과학주의적인 허위의식에 사로 잡히게 되던지, 아니면 파라다임적 성격을 띠거나, 비교불가능한 이론의 공허한 대결이 될 것이며,

2. 이 〈논쟁〉을 〈철학이론〉으로 본다면 양자의 이론은 서로 엄격히 대결될 수는 없고, 이 〈논쟁〉을 통해 양자의 입장은 여러가지로 조명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이 〈논쟁〉을 개방적이고 반성적인 〈철학적 자유〉로 본다면 이것은 철학하는 정신의 무전제성으로 말미암아 전연 대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논쟁자들 각자는 그들 고유의 문제와 방법에 따라서 어디론가 자신이 궁구하는 방향으로 끌없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 〈논쟁〉을 우리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 좋을것인가? 이 〈논쟁〉은 이미 논쟁의 성격을 띠고 대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번 째의 시각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논쟁〉에 참여한 과학철학자나 비판이론가들은 이 〈논쟁〉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론의 한계와 잘못을 스스로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개방적·비판적·무제약적인 철학적인 자유를 진실되게 철저하게 진행시켜 나아가야만 이 〈논쟁〉은 그 참 가치와 의의를 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지의 전개방식은 어떤 점에서는 다소 혈령하게 구성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논자는 〈논쟁〉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써 달리 전개될 수 있는 방식을 두루 살피지 못했다. 그리고 논자는 〈논쟁〉의 내부에서 해매이는 순간은 항상 그들의 시각과 논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으며 따라서 그들의 방식을 따라 양분된 사고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두 입장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란 더욱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양자가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고 있듯이, 논자에게 있어서는 양자 모두가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덧붙임 말 :** 이 논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모든 철학적 자유나 철학이론은 그 시대상황

이나 그들의 지적전통에 기반을 두며,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여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정열의 소산이다. 사회과학의 방법론 또한 그 시대나 그들의 지적전통과 역사적 문화 전통에 기반을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는 우리의 지적전통과 문화 등에 기반을 두고 이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기약하는 창조적인 길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학문의 이상(理想)인 진리는 보편적인 원리의 발전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보편성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도달될 것이다. 진리는 가까이 있다. 진리는 구체적이다. 진리는 가까운데서부터 먼데로 一貫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다. 참다운 진리는 개별에 대해서도 진리이며 동시에 전체에 대해서도 진리인 것이다. 길은 하나로 통하지만 하나로 지향하는 길은 무수히 많다. 우리의 길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과 우리들이企投한目的에 의해 결정된다. 그 길을 가는 우리는 그 길이 보편적인 진리로 一貫하는가하는 끊임없는 반성과 비판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왜 알려고 하는가! 이것은 반성의 第一問이다.

## 참고문현

- 신일철 편, *프랑크푸르트학파*, 청람사, 1979
- 심윤종, 「프랑크푸르트학파와 비판이론」, In : *프랑크푸르트학파*, 신일철 편
- 이규호 편, *사회과학의 방법론*, 현암사, 1973
- 이규호, *앎과 삶*, 연세대 출판부, 1972
- 이인석, 「하버마스의 사회인식론」, In : *프랑크푸르트학파*, 신일철 편
- 정경연구사, *정경연구*, 권 38, 권 43, 권 45, 권 61, 권 62, 권 100, 권 104, 권 115  
권 125-133, 권 152-174, 권 178-185.
- 차인석, 「사회과학의 과학론」, In : *사회과학의 철학*, 차인석 편
- 차인석 편, *사회과학의 철학*, 민음사, 1980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방법론*, 민음사, 1977
- \_\_\_\_\_, *한국사회과학의 오늘과 내일, 개소기념 세미나 논문집*,  
1977. 3. 26.
- 현상과 인식사, *현상과 인식*, 1977년 가을호, pp. 6~55, 「영미—서구철학정신  
의 갈등과 대화」(토론자 : 이규호, 이명현, 김여수, 박동환)
- Adorno, Th. W., et al., *Der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ziologie*, Herman Luchter und Verlag, 1969, *The Positivist Dispute in German Sociology*, trans. Glyn Adey and David Frisby, Heinemann Educational Books, New York, 1976.
- Adorno, Th. W., [Introduction], in: *Positivist Dispute*, pp. 1-67.
- \_\_\_\_\_, [Sociology and Empirical Research], in: *Positivist Dispute*, pp. 68-86.
- \_\_\_\_\_, [On the Logic of the Social Science], in: *Positivist Dispute*, pp. 105-122.
- \_\_\_\_\_, *Negative Dialectics*, trans. E.B. Ashton, RKP, London, 1973.
- \_\_\_\_\_, and Horkheimer, M., *Dialectic of Enlightenment*, The Seabury Press, New York, 1972.
- Albert, H., [The Myth of Total Reason], in: *Positivist Dispute*, pp. 163-197.
- \_\_\_\_\_, [Behind Positivism's Back?], in: *Positivist Dispute*, pp. 126-257.
- \_\_\_\_\_, [A Short Surprised Postscript to a Long Introduction], in: *Positivist Dispute*, pp. 283-287.
- \_\_\_\_\_, [Zur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Vol. 5, 1964.
- \_\_\_\_\_, *Traktat über kritische Vernunft*, 2nd ed., Tübingen, 1969.
- Habermas, J., [The Analytical Theory of Science and Dialectics], in: *Positivist Dispute*, pp. 131-162.
- \_\_\_\_\_, [A Positivistically Bisected Rationalism], in: *Positivist Dispute*, pp. 198-225.
- \_\_\_\_\_, [A Postscript to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in: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pp. 301-350.
- \_\_\_\_\_,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 J. Shapiro, London, 1973.

- \_\_\_\_\_, *Theory and Practice*, trans. J. Viertel, London, 1974.
- Popper, K.R., [The Logic of the Social Sciences] in: *Positivist Dispute*, pp. 87-104.
- \_\_\_\_\_, [Reason or Revolution?] in: *Positivist Dispute*, pp. 288-300.
- \_\_\_\_\_,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ondon, 1963.
- \_\_\_\_\_,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Oxford, 1972.
- \_\_\_\_\_,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2 vols. London, 1966.
- \_\_\_\_\_, *The Poverty of Historicism*, London, 1960.
- Dahrendorf, R., [Remarks on the Discussion] in: *Positivist Dispute*, pp. 123-130.
- Apel, K.O., *Transformation der Philosophie*, 2 vols, Frankfurt, 1973.
- Bayertz, K., *Wissenschaft als historischer Prozeß. Die antipositivistische Wende in der Wissenschaftstheorie*,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1980.
- Bollnow, O.F., *Philosophie der Erkenntnis*, Stuttgart, 1970.
- Feyerabend, P., *Against Method. Outline of 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 London, 1975.
- Frankfurt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spects of Sociology*, Boston, 1972.
- Giddens, A., ed., *Positivism and Sociology*, London, 1974.
- Hayek,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London, 1962.
- Hempel, C., *Rudolf Carnap, Logical Empiricist*, Dordrecht, 1975.
- Horkheimer, M., *Critical Theory*, New York, 1972.
- Israel, J., *Der Begriff Dialektik*, Hamburg, 1979.
- Kaplan, A., *The Conduct of Inquiry. Methodology for Behavioral Science*, California, 1964.
- Kuhn, Th., *The Structure of the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1962.
- Lorenzen, [Szienfismus versus Dialektik] in: Bubner R., et als., *Hermeneutik und Dialektik*, Tübingen, 1970.
- Nagel, E., *The Structure of Science. Problems in the Logic of Scientific Explanation*, London, 1979.
- Riedel, M., ed., *Rehabilitierung der praktischen Philosophie*, Freiburg, Vol. I, 1972., Vol. II, 1974.
- Rombach, hrsg. *Wissenschaftstheorie*, 2 vols. Freiburg, 1974.
- Sander, F., *Experimentelle Ergebnisse der Gestalt Psychologie*, Leibzig, 1928.
- Sarlemijn, A., *Hegel's Dialectic*, Dordrect-Holland, 1975.
- Schnädelbach, [Über den Realismus], in: *Zeitschrift für allgemeine Wissenschaftstheorie*, Vol. 3, 1972.
- Seiffert, H.,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stheorie* Bd. I, II, Verlag C.H. Beck, München, 1980.
- Wellmer, A., *Critical Theory of Society*, The Seabury Press, 1974.